

## 세계 건설시장 투자동향 분석

권 오 현  
(CERIK 연구위원)

### < 요약 >

-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및 성장속도를 갖는 다양한 국가들에 있어 건설산업의 비중 및 그에 대한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해외 건설시장의 개척 및 국내 건설산업의 장기적 투자수준을 전망함에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음.
- 최근 Engineering News-Record (ENR)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세계의 건설시장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3조 4,133억\$(한화 약 4,100조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 총생산의 10.6%로서 1996년 11.3%에 비해 다소 감소한 상태.
- ENR 자료에 기초한 본 분석을 통해 GDP수준과 건설투자 사이에 매우 뚜렷한 선형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하였음.
-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저소득 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점차 증가하여 약 2,500\$에서 12%로 최고 수준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완만한 逆 U字 형태를 취함. 그러나 결정계수 값이 매우 낮고, 커브의 기울기도 완만하여 소득수준과 건설투자 비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을 보여줌.
- 따라서 경제 발전정도에 따라 건설산업의 비중이 크게 상이할 것이라는 인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
-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건설투자 증가율 사이에도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우에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추세선 밑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경우에는 주로 추세선 위에 있어 가속도원리가 대체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세계 건설시장은 미국과 일본 등 2개국이 전체 세계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큰 시장규모를 가짐. 1996년까지는 일본이 세계 전체 건설시장의 22%를 점유하면서 최대 시장을 형성했으나, 일본 경제의 침체로 인한 발주 부진과 엔화의 약세로 인해 2위로 하락.
- 최근 2년간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연평균 34%를 상회하고 있으며, 건설투자 증가율 상위 20개 국가 중에서 세계 시장의 1%를 넘는 비교적 큰 건설시장을 갖는 국가로는 러시아, 스페인, 인디아, 멕시코 등이며, 미국의 경우 최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3%의 증가를 기록하여 34위에 이름.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적도기니로 96년에는 무려 85.3%에 이르렀으며, 투자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타지키스탄으로 3%에 지나지 않음.